

생태위기와 에코페미니즘의 ‘젠더’론*

— 젠더의 저항성 회복을 위한 모색

박혜영**

[초 록]

본 논문은 여성과 자연의 상호연관성을 강조해온 에코페미니즘의 젠더론을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에코페미니즘은 여성의 억압과 자연의 악탈이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에 의한 동일한 산물이라고 보기에 페미니즘적 관점을 에콜로지에 접목시킬 것을 주장한다. 하지만 에코페미니즘의 젠더론은 여성과 자연의 친밀성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여러 페미니스트들로부터 본질주의라는 비판을 받는다. 여성과 자연의 상호연관성을 강조하는 입장이 여성억압의 근거인 가부장제의 논리이자 동시에 ‘여성’이라는 단일 범주 안에 포함되지 못하는 타자들을 배제하는 논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즈와 같은 사회주의 에코페미니스트들은 제3세계 토착여성들의 젠더문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자연과 생계를 돌보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이들의 젠더문화야말로

* 본 논문은 인하대학교 일반교수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과제번호: 5915901, 연구기간: 2018.10.1~2019.9.30).

** 인하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주제어: 젠더 정체성, 수행성, 에코페미니즘, 자연, 본질주의
Gender Identity, Performativity, Ecofeminism, Nature, Essentialism

로 생태위기를 초래한 자본주의에 저항할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에코페미니즘의 젠더론에 담긴 연대와 협력의 정치성에 주목하여 이를 버틀러의 젠더 수행성과 비교함으로써 전자의 생태적 저항성을 되살리는 것이 생태위기 시대에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1. 들어가며

최근 환경운동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인사를 꼽는다면 단연코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를 들 수 있다. 툰베리는 16세라는 나이에 일찍이 그 어떤 환경운동가도 받지 못했던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유엔본부의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나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각국 정상들을 질타하는 연설을 하였다. 툰베리는 매주 금요일마다 등교를 거부한 채 스웨덴의 국회의사당 건물 앞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라는 일인 시위를 진행하였고, 이에 전 세계 청소년들이 대응시위를 벌임으로써 미국이 파리협정을 탈퇴한 이후 지리멸렬하던 기후변화 문제가 미래세대의 생존을 위한 절박한 현실임을 다시금 상기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그레타 효과’(Greta Effect)라고 불릴 정도의 놀라운 파급력 덕분에 현재 기후문제에 관한 한 꺼져가던 전 세계 정치권과 언론의 관심이 되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언론이 주목한 것은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직접 행동도 불사하는 에코 워리어(eco warriors)들의 활동이 툰베리와 같은 신세대 소녀들을 중심으로 두드러진다는 점이었다.¹⁾ 역사

1) 2019년 9월 19일 「포브스」지에 실린 기사 “그레타 툰베리 효과: 소녀 에코 워리어들의 등장”(The Greta Thunberg Effect: The Rise of Girl Eco-Warriors)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이나 영국에서도 소녀들이 중심이 되어 기후변화와 환경보호를 위해 직접 행동이나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적극 나서고 있는데, 이와 같은 특징은 에코페미니즘 관점에서 보자면 새로운 물결이라고 평가하였다(<https://www.forbes.com/sites/bonniecchiu/2019/09/19/the-greta-thunberg-effect-the-rise-of-girl-eco-warriors/#36dcd2ba407f>).

적으로 보자면 1970년대에 일어났던 인도의 칩코운동(Chipko Movement)에서부터 왕가리 마타이(Wangari Maathai)가 주도했던 케냐의 그린벨트 운동(Green Belt Movement)에 이르기까지 환경문제를 둘러싼 여성들의 주도적 참여가 특히나 제3세계 페미니즘 운동의 주요 성과였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운동 분야에서 여성들이 이룩해온 성과가 오늘날 페미니즘의 중요한 결실로서 얼마나 정당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스럽다. 물론 초국적 자본주의의 맹렬한 팽창과 이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가 이미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으며, 그 결과 지구온난화로 초래될 기후변화가 향후 미래세대의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점은 누구나 인식하는 바이지만, 최근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postmodern feminism)을 비롯한 주류 페미니스트들이 자연의 위기를 젠더적 관점과 연관 지어 성찰하는 데는 상당히 인색한 것도 사실이라 하겠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젠더불평등 해소는 현재 페미니즘의 주요 과제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에콜로지 문제에 굳이 페미니즘적 관점이 요구되는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환경문제는 탈젠더적인 인류의 보편적 이슈이기에 페미니즘만의 의제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페미니즘과 에콜로지의 결합을 강조해온 에코페미니즘으로서는 환경문제에서부터 나아가 생태계 위기에 이르기까지 그 원인과 해결이 왜 페미

2) 칩코운동은 대규모 벌목을 막고자 인도의 히말라야 지역에서 일어났던 자연보호 운동으로 그 명칭은 우타 프라데시 지역의 토착여성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숲을 보호하기 위해 몸으로 나무를 감싸 안음으로써 벌목을 막았던 데서 붙여졌다. 또한 그린벨트운동은 산림의 황폐화가 농촌 지역의 빈곤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케냐의 활동가인 왕가리 마타이가 주축이 되어 나무 심기에 주력했던 운동으로 수많은 여성들이 케냐뿐 아니라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 걸쳐 5천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었다. 워렌에 따르면 비서구 미개발지역의 경우 가내경제에서 여성들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높을수록 여성들이 주도하는 생계유지가 자연에 더 의존적이며, 따라서 생태파괴로 인한 여성 젠더의 고통이 더 크다고 보았다[Karen Warren (2000), *Ecofeminist Philosophy*,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pp. 2-3].

니즘의 의제가 되어야 하는지를 입증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환경문제를 페미니즘적 의제로 설정하려는 이런 노력은 실제로는 많은 페미니스트들의 우려와 반감을 낳고 있다. 왜냐하면 여성 젠더와 자연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에코페미니즘의 논리는 바로 여성억압의 근거인 가부장제의 논리이자 동시에 ‘여성’이라는 단일 범주 안에 포함되지 못하는 수많은 타자들을 배제하는 논리이기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페미니스트들의 이런 반감을 완화하고 생태위기라는 절박한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에코페미니즘이 말하는 젠더가 무엇인지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인류가 이룩한 모든 공동체는 여성과 남성이라는 두 젠더를 기반으로 형성되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두 젠더가 똑같이 평등한 삶을 누렸던 것은 아니다. 1792년 울스톤크래프트(Mary Wollstonecraft)의 『여성권리의 옹호』(*A Vindication of the Rights of Women*)로 시작된 서구 페미니즘은 이런 여성 불평등의 다양한 원인을 규명하고 (양)성평등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오늘날 적어도 선진국 여성들은 육아나 가사와 같은 사적 영역에서부터 정치, 경제와 같은 사회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수준의 평등을 누리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젠더평등의 문제를 전 지구적으로 놓고 보자면 과연 그 성과를 상찬만 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대표적인 사회주의 에코페미니스트인 미즈(Maria Mies)가 주장하듯이 페미니즘이 오랫동안 투쟁해왔던 가부장제의 위계적 권력구도가 비록 일부 선진국에서는 축소되었다 하더라도 전 지구적 관점에서 보자면 더욱 확산되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³⁾ 실제로 신자

3) 미즈에 따르면 가부장제(patriarchy)는 ‘전통적 가부장제’와 ‘근대적 가부장제’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가 지리적, 역사적으로 특정 장소나 사회에 국한된 것이라면 후자는 이런 전통적인 억압구조가 보편적인 사회전반의 권력구조로 확대된 것을 지칭한다. 즉 ‘아버지의 지배’(rule of fathers)가 근대 이후 모든 여성에 대한 모든 남성의 지배라는 일반적인 착취체계를 갖추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에코페미니즘은 근대 이후 가부장제가 오히려 더 확산되었다고 주장한다[Maria

유주의 시대 이후 더욱 약탈적인 자본주의의 팽창으로 대규모의 계급적, 인종적, 민족적 난민들이 양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위계구도에 있어서도 부유한 북반구(the North)와 가난한 남반구(the South)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진 채 고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불평등은 인종과 계급, 민족과 젠더를 뛰어넘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세계화의 중요한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⁴⁾ 물론 젠더평등이 비단 경제적 평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젠더를 넘어 인종, 민족, 계급적으로 고착되고 있는 극심한 불평등에 대한 반성 없이 젠더평등의 성과를 논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나아가 이런 불평등의 문제와 더불어 오늘날의 과도한 경제개발과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촉발된 대규모의 생태계 파괴가 인류의 존재 자체를 위협할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령 ‘인류세’(anthropocene)라는 말은 2000년 멕시코에서 열린 지구환경 관련 국제회의에서 처음 언급된 이후 이제는 현상황의 급박함을 알리는 상식적인 용어가 되어버렸다. 인류세의 시작은 지구의 지질학에서 자연이 아닌 ‘인류’라는 단일종이 주도하는 물리적 변화가 전 지구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데, 과학자들은 대표적인 사례로 플라스틱이 퇴적된 새로운 지층의 탄생을 들고 있다. 다시 말해

Mies (1998), *Patriarchy & Accumulation on a World Scale*, New York: Zed books, pp. 37-38].

- 4) 불평등 연구의 대가인 피케티는 지금까지 인류가 신봉해 온 아이디어, 즉 경제성장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향상시킨다는 생각이 사실은 거짓이었음을 자료를 통해 입증한다. 가령 OECD 국가들의 경우에도 1983년부터 1995년까지의 신자유주의 시대에 부자들의 부는 비약적으로 증가했지만 노동자들의 삶은 오히려 실질임금의 하락으로 그 질이 더 떨어졌다는 것이다[토마 피케티 (2014), 유영 역, 『불평등 경제』, 서울: 마로니에 북스, p. 121]. 피케티 외에도 스티글리츠와 같은 주류 경제학자들조차도 전 지구적 불평등이 더욱 확산되고 그 격차도 더 커졌음을 주목하였다. 1퍼센트 대 99퍼센트로 벌어진 격차는 심각한 사회적 불안과 갈등을 야기함으로써 결국은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가 말하는 불평등의 ‘대가’이다[조지프 스티글리츠(2013), 이순희 역, 『불평등의 대가: 분열된 사회는 왜 위험한가』, 서울: 열린책들, 5장 「민주주의의 위기」 참조].

인류세는 인류의 활동에 의한 지구 생태계의 교란이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파멸을 낳게 될 것이라는 논의가 과학적 차원에서 연구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⁵⁾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류세라는 용어 자체가 무엇보다도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적 사고방식과 가치추구가 바로 지구가 직면한 물리적 대변환의 원인임을 적시한다는 사실이다.

에코페미니즘은 이런 인간중심주의가 바로 모든 약자들을 여성적인 것으로 젠더화하여 차별하고 억압해온 남성중심주의(androcentrism)와 동일한 사고체계라고 주장한다. 가령 인류가 자연을 약탈한 것과 같은 논리로 서구가 식민지를 약탈하고 자본가가 노동자를 약탈했으며 남성이 여성을 약탈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에코페미니즘과는 달리 대부분의 페미니즘에서는 남녀 간의 젠더차별이나 불평등에 대한 비판이 자연과 생태계 위기에 대한 문제로 확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여타의 페미니즘에서는 젠더불평등과 자연파괴를 상호 연결된 문제로 인식하지 않으며, 이런 인식의 결여로 인해 생태계 위기가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페미니즘 학계의 에콜로지에 대한 관심이 생태 위기에 비례하여 빠르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여 본 논문은 에콜로지에 대한 페미니즘의 관심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에코페미니즘의 젠더론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페미니즘 입장에서 보자면 에코페미니즘의 젠더론은 그 성격이

5) 인류문명이 번성할 수 있었던 ‘홀로세’(holocene)에서 인간의 힘에 의해 지구 시스템이 교란되는 ‘인류세’로의 이행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 호주의 경제학자인 클라이브 해밀턴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재 인류의 역사와 지구의 역사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충돌보다 더 큰 충돌은 없을 것이다. 인간의 공통된 운명을 좌우하는 능력이 더 이상 인간에게 있지 않을 가능성은 사실상 인류세 과학에 내재된 의미이며, 이는 근대의 종말을 뜻한다. 우리가 기술을 이용해 지구 시스템이 붕괴를 막고 지질학적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 있을 거란 확신은 새로운 지질시대를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이다. 이제 지구의 운명과 인간의 운명이 합쳐졌기 때문이다.”[클라이브 해밀턴(2018), 정서진 역, 『인류세』, 서울: 이상북스, p. 207].

지니는 '본질주의'(essentialism)적 특성으로 인해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에코페미니즘의 젠더론이 어떤 본질주의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여기에 대한 다양한 비판들을 분석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그와 같은 본질주의를 여성억압의 원인으로 간주하는 여타의 페미니즘의 지적에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 미즈로 대표되는 자급적 관점의 젠더론과 버틀러(Judith Butler)로 대표되는 수행적 젠더론을 서로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포스트모던 페미니스트들은 에코페미니즘이 지니는 여성 젠더와 자연과의 본질주의만 지적했을 뿐 그 상호연관성에 담긴 정치적 저항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다시 말해 미즈와 달리 '여성'이라는 본질은 물론이고 섹스와 섹슈얼리티(sexuality)까지도 모두 언술과 행위의 반복적 수행을 통해 일시적으로 구현된 것이라는 버틀러의 관점이 여성 젠더가 전통적으로 담보해왔던 정치적 저항성을 간과하고 있음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이런 비교를 통해 젠더란 무엇인가, 젠더는 개별적인 행위인가, 젠더는 사회적 장소와 분리될 수 있는가와 같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해봄으로써 에코페미니즘의 젠더론이 가부장제뿐 아니라 나아가 자본주의와 식민주의에도 맞설 수 있는 정치적 저항성을 담지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즈가 말하는 젠더란 구체적인 사회적 공간 내에서 공통의(communal) 경험으로 형성되고 전승된 것이며, 그 관점은 지극히 자급적, 자율적, 자치적인 성격을 띤다는 것이다. 토착 사회의 젠더가 지녔던 이런 민중적 정치성이 여성 범주의 해체와 함께 같이 사라짐으로써 자본주의 체제 이후 본격적으로 사유화되기 시작한 자연과 함께 젠더도 사적인 영역으로 한정되고 개별화되며 그로 인해 탈정치화 되었다고 하겠다. 그 결과 젠더와 자연 모두 자본주의의 공격에 더욱 취약해졌으며 더욱 고립된 상태로 내몰리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이 지향하는 식의 젠더해체가 아니라 오히려 젠더문화가 지닌 정치적 저항성의 회복이야말로 자본

주의의 팽창과 생태위기의 확산을 막을 주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여기서 에코페미니즘의 젠더론에 주목하는 것은 젠더 불평등의 과제를 과소평가하기 때문이 아님은 물론이다. 다만 젠더평등이라는 목표조차도 지속가능한 생존토대가 전제되지 않는 한 구현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전 지구적으로 구현된다 하더라도 지구 없이는 지속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2. 여성과 자연의 상호연관성

에코페미니즘은 에콜로지와 페미니즘 양자의 결합인 만큼 두 사상의 복잡한 갈래를 모두 아우르는 이론적 특성을 지닌다. 이들은 입장에 따라 자유주의 에코페미니즘, 사회주의 에코페미니즘, 문화주의 에코페미니즘, 그리고 심층생태학(deep ecology)에 가까운 영성주의 에코페미니즘(spiritual ecofeminism)과 최근에 대두된 퀴어 에코페미니즘(queer ecofeminism)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지만, 여성 젠더와 자연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인간과 자연에 대한 모든 형태의 지배와 억압에 저항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⁶⁾ 1970년대에 에코페미니즘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든 도오번(Françoise D'eauborne)은 “이것은 더 이상 복지가 아니라 필수불가결의 문제이자, 좀 더 나은 삶이 아니라 파멸을 피하는 문제이며, 좀 더 공정한 삶이 아니라 생물종 전체가 앞으로 미래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204)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이런 생태적 위기를 초래한

6) 에코페미니즘은 그 갈래에 따라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이성애주의, 계급차별주의와 나아가 생물다양성 보호, 농업과 식량문제, 과학기술의 오남용에 관한 문제, 군사문화 반대와 반전운동, 댐건설과 핵발전 반대운동, 오염과 화학약품의 사용문제, 소비자 보호운동과 토착문화 보호 및 공동체 운동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그 관심의 폭을 넓히고 있다[박혜영 (2009), 「생태과괴시대의 페미니즘」, 『영미문학페미니즘』 17 (1), p. 86 참조].

‘남성적 시스템’(male system)과의 전면적인 결별 없이는 인류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녀는 단지 권력을 남성과 나누거나 아니면 여성에게로 이행하는 ‘모부장제’(matriarchy) 차원이 아니라 여성들에 의해 모든 형태의 권력이 전부 와해되는 새로운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⁷⁾ 이처럼 생태위기를 젠더라는 틀로 분석하려는 노력은 우열과 배제에 토대를 둔 여성억압의 가부장제 논리가 식민지배와 자연과 괴를 초래한 인간/자연, 서구/비서구, 문명/야만과 같은 제국주의나 자본주의의 억압논리와 동일하게 작동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비서구와 자연을 약탈하는 제국주의와 자본주의도 여성을 억압하는 가부장제와 동일한 방식이기에 전부 다 ‘남성적 시스템’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여성과 자연을 연결시키려는 에코페미니즘의 노력은 자연에 대한 착취와 약탈이 여성의 종속이나 억압과 연관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며, 따라서 문제의 해결방법도 돌봄과 같은 여성의 젠더적 특성이 자연의 특성과 유사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자연을 더 잘 이해하고 돌볼 수 있다는 방안으로 이어진다. 이 장에서는 에코페미니즘에서 논의되는 여성 젠더와 자연과의 상호연관성을 살펴보고 이런 본질주의적 입장에 대한 주요 반론을 검토하고자 한다.

1990년대 이후 젠더를 둘러싸고 에코페미니즘이 직면한 본질주의의 난제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여성의 자연화(naturalizing the feminine), 내지는 자연의 여성화(feminizing nature)라는 관점에 대해 과연 ‘여성’이라고 부를만한 ‘본질’이 존재 하는가 라는 질문이다. 다음으로는 섹스(몸)와 섹슈얼리티(sexuality)가 해체됨으로써 수많은 다양한 ‘여성들’이 등장한 오늘날에도 과연 동일한 여성이라는 단일 ‘범주’가 존재 하는가 라는 질문이다. 범주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공통의 본질적 특성이 존재한다는 전제가 필요하기에 사실상 이 두 난제는 동전의 양면처럼

7) Françoise D'eauborne (2008), “The Time for Ecofeminism”, *Ecology* (ed. by Carolyn Merchant), New York: Humanity Books, pp. 204-205.

럼 서로 연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에코페미니즘이 왜 여성 젠더에 대해 이런 본질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에코페미니즘이 인식론적으로는 여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자. 워렌(Karen J. Warren)과 플럼우드(Val Plumwood)는 여성과 자연에 대한 동일한 착취를 인식론적 틀에서 성찰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운리를 모색했던 대표적인 철학자이다. 먼저 워렌은 여성과 자연이 모두 동일한 인식론적 ‘지배논리’(logic of domination)에 의해 양자의 착취가 정당화되었다는 점에서 여성 젠더와 자연의 유사성을 찾는다. 가령 인간은 여성과 남성이라는 두 개의 젠더로 구성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남성은 보편적인(universal) ‘인간’이나 ‘정신’의 영역과 동일시되지만 여성은 개별적인(particular) ‘자연’이나 ‘육체’의 영역과 동일시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물론 개별적인 것은 보편적인 것이 비해 하위에 위치하게 된다. 따라서 자연은 인간이나 정신의 지배를 받도록 종속되어야 하는데, 마찬가지로의 인식적 틀에 의해 여성도 남성에게 종속되었다는 것이다. 워렌이 보기에 지배논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인식의 틀로 인해 가부장제 체제에서 “차이가 지배를 낳는”(difference breeds domination) 것이 개념적으로 정당화되었을 뿐 아니라 억압적인 지배를 강화하는데도 기여했다는 것이다.⁸⁾ 그녀는 이처럼 남성중심주의적 인식론이 생태위기의 근원이기에 범주로서의 여성에 초점을 맞출 경우 젠더와 자연과의 상호 연관된 지배체제의 특성이 더 잘 드러난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플럼우드는 워렌이 언급한 가부장제 내의 ‘지배논리’의 기원을 찾기 위해 서구 형이상학의 이원론적 인식론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녀가 보기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데카르트에 이어지는 이원론적 인식의 틀은 그 기원부터 이성(reason) 우위로 젠더화 되어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자연을 착취한 인간중심주의는 결국 남성중심주의

8) Karen J. Warren (1994), “Toward an ecofeminist peace politics”, *Ecological Feminism* (ed. by Karen J. Warren), London: Routledge, pp. 184-185.

적 인식과 동일하다고 보았다. 이런 형이상학적 이원론 속에서 오랫동안 여성은 동물이나 토착원주민과 함께 자연적인 것으로 간주되었고, 쉽게 지배의 논리에 포섭되었다는 것이다. “이성을 지배하고 명령함으로써 ‘자연’이라는 혼돈스럽고 결핍된 영역을 통제하는 것이 서구문화의 주류 담론”이었으며, “자연 지배에 대한 이런 이데올로기가 서구에서 다른 형태의 주요 억압을 구조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⁹⁾ 자연의 외부에서 인간인식의 틀을 구성해온 형이상학으로 인해 자연의 초월성이 강조되고, 자연은 경제적 측면에서 외부화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가부장제를 떠받드는 서구의 이원론적 인식론은 여성과 자연과의 본질적 연관성을 일종의 우열관계로 배치함으로써 여성과 자연을 같은 방식으로 착취할 수 있었다. 워렌과 플럼우드는 우열에 토대를 둔 젠더화된 방식의 이분법적 형이상학을 비판하고 자연을 비롯한 타자들과의 수평적 공감에 토대를 둔 ‘관계적 자아’(relational self)라는 새로운 여성적 윤리의 확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질주의가 위계적 특성이 아니라 관계적 특성이라는 점은 여성과 자연과의 연관성이 가부장제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줄 뿐 아니라 본질주의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반감이 실제로는 이런 가부장적 관점을 그대로 차용한 것임도 밝혀준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환경윤리의 틀로 재설정된 여성과 자연 역시 기존의 가부장제의 위계적 이원론에 의해 이미 오염되어 있는 개념이라는 점이다. 이에 에이즐러(Riane Eisler)와 같은 에코페미니스트들은 생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미 부정적으로 여성 젠더를 고정시킨 이원론적 틀 내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가부장제 밖에서 여성과 자연의 상호연관성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강조하는 ‘가이아’(Gaia) 전통은 지구를 여성화하여 보는 것으로 여성에게는 자연을 이해하는 특별한 본능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여성에게 부여된 이런 인식적 특권

9) Val Plumwood (1994), “The ecopolitics debate and the politics of nature”, *Ecological Feminism*, p. 74.

은 전통적인 여신숭배와도 연결되는데, 주로 산업사회 이전의 토착사회에서 여성이 땅과 밀접한 유대관계를 맺던 데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 에이즐러는 선사시대는 자연을 여신이자 모든 생명체를 잉태하는 위대한 모성으로 이해했다고 하면서, 그런 사회는 적어도 지금 우리에게 없는 ‘생태의식’이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평화롭던 시절이었다고 말한다 (Karren, p. 23). 이런 관점은 여성과 자연을 하위개념으로 동일시하던 남성중심적 인식론을 거부하고, 땅에 뿌리를 둔 토착적 관점에서 여성과 자연의 상호연관성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본질주의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하지만 다른 한편 여성이 자연과 공유하는 영성적 친밀성에 대한 이들의 입장에 대해 에코페미니즘 내부에서도 반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가령 프렌티스(Susan Prentice)에 따르면 선사시대까지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도 젠더적 특성을 여성의 본질로 수용하는 것은 의도와 상관없이 가부장제의 논리로 회귀하는 오류를 낳는다는 것이다.¹⁰⁾ 그러나 종교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이들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이 단순히 원시시대와 여성의 모성을 신비화하려는데 그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오히려 반대로 이들은 지구(땅)에 토대를 둔 구체적인 지각능력의 회복을 강조하는데, 원시 공동체가 보여준 구체적인 장소에 토대를 둔 여성적 공감력의 회복이 지금의 생태위기를 해결하는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사회의 범위 밖에서 영성적 친밀성에 토대를 둔 젠더 인식론을 강조할 경우 근대사회 속에서 이미 타자로 젠더화된 여성과 자연이 어떻게 스스로 오염되지 않은 원래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제3세계 토착여성들의 자급적 관점을 강조했던 미즈(Maria Mies)나 쉬바(Vandana Shiva)와 같은 사회주의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입장은 하나의 대안적 관점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미즈의 젠

10) Carolyn Merchant (1992), *Radical Ecology: The Search for the Livable World*, New York: Routledge, p. 300.

더론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들 사회주의 에코페미니즘은 굳이 가부장제 이전의 원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여성과 자연이 그 본래의 본성을 통해 상호연결되어 있으며, 따라서 여성들 간의 협력으로 자기들의 생활터전과 자연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였음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먼저 이들은 산업자본주의 시대의 여성에 대한 노동착취와 자연에 대한 자원약탈이 서로 맞닿아 있는 문제임을 직시하기 위해 생태위기와 여성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의 상실, 그리고 제3세계의 약탈의 문제를 동시에 관통하는 연결고리로서 자본주의에 주목한다. 가부장제와 결합한 자본주의로 인해 성별 노동분업은 가정에서 사회로 나아가 제3세계로까지 확장되고, 이 과정에서 두 개의 자유재였던 여성과 자연이 공통적으로 착취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자연과 여성, 그리고 제3세계가 공통적으로 겪었던 이 과정을 미즈는 ‘가정주부화’(housewifization)라고 설명하는데, 이처럼 젠더화된 용어를 빌어 여성, 자연, 제3세계에 대한 자본주의의 착취를 이론화한 것은 이것이 모두 자본주의 경제 외부에서 일어나는 비공식 영역의 노동이자 성별분업 방식의 노동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가 여성에게 관심을 가진 이유는 산업사회에서 여성은 남성과 달리 ‘노동력’(노동자)으로 흡수되지 못한 채 ‘가정주부’로만 인식되었으며, 여성의 (재)생산력에 따라붙은 ‘가정주부’라는 젠더화된 용어로 인해 여성의 (재)생산력은 경제적으로는 자유재로, 정치적으로는 권리를 박탈당한(disempowerment) 비시민으로 간주되어 공공영역에서 배제되고 고립되었다는 것이다[Mies (1998), p. 116]. 이것은 젠더와 자연, 그리고 자본주의와의 관계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는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입장과는 대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자급경제’(subsistence economy)의 회복이 땅을 보호하고 자연을 지켜온 여성 젠더의 역할에 기대고 있다는 점과 이런 제3세계 여성들의 공동체적인 협업이 야말로 글로벌 시장경제의 약탈에 맞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방법이

라는 점은, 앞선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젠더론이 다양한 여성들에 걸쳐있는 인종과 계급이라는 중요한 차이를 지워버림으로써 여성들을 균질화 시킨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중요한 반증이 될 수 있다.¹¹⁾

물론 이런 입장에 대해서도 토착사회 내부의 불평등을 간과한 채 자급 경제를 낭만화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여성억압의 기원인 공동체 속으로 다시 여성들을 떠밀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에코페미니즘이 여성에게 제시하는 처방전은 초월은 거부하고, 그 대신 자신의 몸을 껴안으며 어머니들과의 유대는 유지하고, 자기 지역의 에코시스템 속에 묻힌 채 자유나 자율과 같은 목표는 포기하고, 그저 식솔과 공동체를 돌보며 자급적 생산에 힘을 쏟으라는 식이다. 이런 식의 보수주의로는 여성들이 임파워먼트를 회복할 수 없다.¹²⁾

미즈를 향한 이런 반박은 대부분의 페미니스트들이 ‘공동체’에 대해 갖는 경계심을 대변한다. 페미니즘 관점에서 보자면 공동체는 전통적으로 가부장제가 구현되는 공간이기에 이런 공동체주의를 강조할 경우 개별 여성의 자유나 해방은 억압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여성의 헌신과 희생에 바탕을 둔 공동체주의를 벗어나지 않고서는 여성의 자유와 해방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최근에는 에코페

11) 다비온(Victoria Davion)은 이런 입장을 대변하는데, 그녀에 따르면 일부 엘리트 여성들도 다른 약자-여성과 자연을 억압하기에 인종과 계급을 젠더와 함께 논의하지 않는다면 그런 입장은 ‘에코페미닌’(ecofemine)할지는 몰라도 에코페미니즘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녀의 이런 입장은 젠더가 본질이 아닌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지만 실제로 액티비즘 차원에서는 본질주의를 전략적 방안으로 이용하지는 주장도 있다[Greta Gaard (2011), “Ecofeminism Revisited: Rejecting Essentialism and Re-placing Species in a Material Feminist Environmentalism”, *Feminist Formations* 23 (2), p. 36].

12) Mary Mellor (2007), “Ecofeminism: Linking Gender and Ecology”, *The Sage Handbook of Environment and Society* (ed. by Jules Pretty & all), Sage Publications, p. 74.

미니즘 내부에서도 본질주의와 공동체주의를 피하고, 보다 현실적인 물적 토대 위에서 사회정의와 생태위기를 조명하기 위해 “새로운 에코페미니즘”(New Ecofeminism)이 요청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가령 스티전(Noël Sturgeon)은 에코페미니즘이란 용어 대신에 ‘글로벌 페미니스트 환경정의’(global feminist environmental justice)라는 긴 명칭을 사용하고, 가드(Greta Gaard)는 여성의 다양성과 다층성을 모두 아우르기 위해 ‘퀴어 에코페미니즘’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새로운 용어의 등장은 역설적이게도 에코페미니즘이 실제 현실에서는 ‘에콜로지’로서도 ‘페미니즘’으로서도 여성들의 주목을 끌기 어려운 상황임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에코페미니즘에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들, 가령 자연과 연관된 여성적 특성이 생물학적 본질인지 아니면 사회문화적 구성물인지, 그런 본질적 특성은 수동성을 지니는지 아니면 능동적인 저항성도 있는지, 공동체주의는 반(反)여성적인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여성이라는 단일 범주를 설정하는 것이 또 다른 억압과 배제를 낳는 것은 아닌지와 같은 다양한 의문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학계의 논의가 필요한 문제들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른 한편 페미니즘에서 에콜로지를 지우려는 포스트모던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의 노력으로 인해 ‘약자들의 정치학’인 페미니즘이 실제로는 가장 약자인 자연으로부터 가장 멀어지게 되는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몬느 드 보봐르(Simone de Beauvoir)부터 게일 루빈(Gayle Rubin)과 모니크 위티그(Monique Wittig)에 이르기까지 대세인 페미니즘 이론가들은 여성을 소위 본질주의나 환원주의, 그리고 정체상태로 묶어둔다고 추정되는 토대로부터 가차 없이 잘라내기 위해 “자연(본질)으로부터의 탈주”(flight from nature)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접근법으로 인해 더 많은 페미니스트 이론들이 “자연”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바로 그 자연이 더욱 더 암시적으로든 노골적으로든 여성혐오라는 기만적인 모래 늪으로 작동함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Gaard, p. 42).

위의 주장은 소위 주류 페미니스트들이 왜 에코페미니즘과 조우하기 어려운가를 잘 지적하는데, 역설적이게도 자연(본질)을 부정하면 할수록 그 자연이 여성혐오라는 늪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연을 부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한 페미니즘은 가급적 ‘자연’과 ‘여성’이라는 범주로부터 탈주하려고 할 것이며, 이로 인해 더 깊은 자연혐오와 여성혐오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인류세 시대가 앞으로 인류의 종말이 될 수 있다는 소위 과학적 경고 앞에서도 지금 페미니즘은 더욱 더 자연으로부터의 탈주를 모색한다는 점이다.

물론 여성의 자연적 본질을 강조하거나 젠더노동으로서의 돌봄 능력을 찬양하는 것은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지적처럼 여성의 섹스와 젠더를 일종의 ‘생물학주의’(biologism)로 고정시키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생물학의 범주를 벗어나 젠더평등과 해방을 성취하려는 페미니즘의 노력이 궁극적으로 이처럼 자연으로부터의 탈주로 귀착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젠더불평등보다 더 큰 생태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지금은 여성이건 남성이건 모두 저마다 자신의 정체성에 맞게 젠더와 신체를 다양하게 변형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인간이라는 유기체를 벗어나려는 기술적 노력은 비유기체, 비물질, 기계와의 조합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은 탈주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본과 기술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있다. 에코페미니즘 입장에서 보자면 바로 이 자본과 기술의 결합이야말로 지금의 자연생태계를 망가뜨리고 빈부격차를 가속화시키며 자울과 자급적인 생활방식을 무너뜨리는 주범이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본질주의를 벗어나고자 젠더와 자연을 모두 문화적 구성물로 ‘탈자연화’시키려는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노력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젠더와 자연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고찰되어야 하는 것이다.

3. 젠더의 정치적 저항성과 생태위기

지금까지 에코페미니즘의 젠더가 어떤 본질적 특성을 지니는지 살펴 보았다. 에코페미니즘은 여성과 자연이 동일한 위계와 특성을 공유한다는 점을 통해 자본주의 이후 여성과 자연에 닥친 변화가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 특히 사회주의 에코페미니즘은 가부장제, 자본주의, 식민주의가 동일한 지배원리를 내재화한 채 서로를 강화한다고 지적하는데, 이와 같은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 에코페미니스트들의 관심은 지금과 같은 생태위기를 초래한 것이 바로 자본주의라는 점에서 자본주의보다는 섹슈얼리티에 더 관심을 기울인 포스트모던 페미니스트들과는 의미 있는 대조를 보여준다. 가령 미즈가 자본주의로 인해 여성이 ‘가정주부화’로 고착되는 과정에 주목했다면, 버틀러는 복수로 존재하는 (성)정체성의 발견을 통해 고착된 (여)성을 해체하는 데 주력하였다. 전자가 자연의 자연성을 복구하고 보존하는데 여성 젠더의 역할을 강조했다면, 후자는 자연을 문화의 일부로 변환시킴으로써 여성 젠더와 섹스에 관한 한 기원부터 오직 문화만 존재했음을 밝히는데 주력하였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젠더와 자연을 모두 탈자연화시키려는 후자의 노력이 자본주의 체제에 실제로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전자와의 정치적 차이가 무엇인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페미니즘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성이라는 범주를 통해 공통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젠더 정체성이 존재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버틀러에 따르면 여성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고정되어 있거나 변하지 않는 본질이 될 수 없다. 그녀는 여성이라는 공통적 정체성이 섹스라는 원본에 기원을 둔 것이 아니라 제도 담론을 통해 가변적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여성 없는 페미니즘’의 시작을 알렸다. 따라서 이런 가변적인 정체성에 근거한 젠더는 모방으로서의 행위로만 존재할 뿐 그 행위 뒤에는 어떠한 원본도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모방을 모방하

는 행위로서의 정체성만 존재할 뿐이기에 페미니즘의 전제처럼 여성이라는 보편적인 범주를 구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젠더는 다양한 행위가 일어나는 작인의 장소나 안정된 정체성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양식화된 행위의 반복을 통해서 시간 속에 희미하게 구성되고, 외부공간에 제도화되는 어떤 정체성이다. 젠더 효과는 몸의 양식화를 통해 생산되고, 따라서 이 효과는 몸의 제스처, 동작,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양식들이 안정된 젠더 자아라는 환영을 구성하는 일상적 방법임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정형화된 젠더 개념은 본질적 정체성의 모델이라는 토대에서 빠져나와, 구성된 사회적 일시성으로서의 젠더 개념을 요구하는 토대로 이동하게 된다. 의미심장하게도, 만일 젠더가 내부적으로 불연속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제도화되는 것이라면, 본질의 외관은 바로 그 구성된 정체성, 즉 수행적 성과물이 된다. (...중략...) 젠더의 속성과 행위들, 몸이 자신의 문화적 의미를 보여주고 생산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수행적인 것이라면, 어떤 행위나 속성이 재단될 수 있는 선형적 정체성이란 없다. 그리고 진정하거나 거짓된 젠더 행위, 사실적이거나 왜곡된 젠더 행위 또한 없다. 결국 진정한 젠더 정체성이라는 가정은 규제가 만든 허구임이 드러날 것이다.¹³⁾

위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버틀러가 젠더 정체성이 허구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 ‘수행성’(performativity)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주체가 전제되어 있는 수행(performance)과는 다른 개념이다. 수행성은 반복적으로 규범을 실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젠더의 가면을 쓰는 것이기에 진정한 정체성이라고 부를 만한 주체가 없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여성을 동일한 여성 젠더로 인식하는 것은 사회규범과 법, 그리고 반복된 호명의 결과이며, 따라서 젠더란 일종의 가면처럼 일시적이

13) 주디스 버틀러(2006), 조현준 역, 『젠더 트러블: 페미니즘과 정체성의 전복』, 서울: 문학동네, pp. 349-350. 이후 버틀러의 모든 인용은 이 책의 페이지임.

고 가변적이며 유동적인 어떤 것이다. 나아가 버틀러는 젠더 수행성과 몸이라고 하는 물질성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는데, 왜냐하면 젠더는 출생과 함께 신체의 섹스(생식기관)에 의해 최초로 호명되면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가령 여자아이는 최초의 신체에 대한 섹스 인식에 의해 여성 젠더로 규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젠더의 원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섹스조차도 문화적 구성물이라는 데 있다. 지금까지 견고한 젠더 정체성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젠더의 토대이자 기원인 몸은 적어도 해부학적으로 진리라고 믿었기 때문이지만, 실제로는 양성인간인 에르퀼린 바르뱅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몸도 사회적으로 어떻게 인식되느냐에 따라 다르게 구성될 수 있는 것이다.¹⁴⁾ 양성의 몸을 지닌 에르퀼린은 섹스와 젠더 그리고 섹슈얼리티의 이분법 체계를 교란시키며 굳건한 이성애중심의 가부장제를 위협하고 해체하는 상징이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성애에 대한 우리의 욕망도 사회규범에 의해 규정된 것이기에 이성애에 토대를 둔 보편적인 가부장제라는 개념도 나아가 이런 가부장제로 억압받는 보편적인 여성이라는 범주를 상정하는 것도 모두 허구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섹스와 섹슈얼리티도 모두 젠더였으며, 이때의 젠더는 가변적인 젠더하기(gendering)로만 정체성을(정체성이라는 것이 가능하다면) 유동적, 일시적, 가변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런 젠더론은 현실적으로 어떤 정치성을 지닐 수 있을까? 버틀러의 젠더론은 정체성의 해체를 통해서 잠시 정체성을 인식한다는

14) 19세기 프랑스에서 태어난 에르퀼린 바르뱅은 여성으로 섹스가 인식된 이후 수녀원에서 자랐지만 우연히 2차 성장기에 후천적으로 남성성이 발견되면서 사라라는 여성과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후 전문가에 의해 남성으로 호명되면서 수녀원을 나오게 된다. 비극적인 자살로 생을 마감한 에르퀼린의 사례를 통해 버틀러는 몸을 보며 규정하는 성차(sexual difference) 역시 가령 이성애에 토대를 둔 사회의 규범적 담론으로 결정되기에 몸도 문화적 구성물이라고 주장한다. 그녀에 따르면 “에르퀼린은 하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성적으로 하나인 정체성의 불가능성”을 실증하는 셈이다(버틀러, p. 128).

점에서 ‘비정체성의 정치학’이며, 그나마도 “정치적, 문화적 접점에서 늘 끊임없이 생산되고 유지되는”(89) 것이기에 중층적 규범이 교차하는 바로 그 접점에서만 정치성을 지닐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비록 일시적이더라도 다양한 접점을 모두 아우를 수 있기에 다양한 차이를 전부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령 성차별만 하더라도 인종, 계급, 지역, 종교, 민족, 섹슈얼리티, 연령과 같은 다양한 접점이 서로 무수히 교차하는 가운데 일어나는데 보편적인 여성이라는 범주로 유형화하는 폭력을 동원하지 않고도 규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차이의 정치’라고 호명되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버틀러 젠더론의 정치성은 차이가 차별을 낳는 것이 아니라 차별 없이 차이를 수용하되 그 급진성이 있다고 하겠다.

버틀러의 젠더 논의는 여성억압의 근원인 젠더와 섹스를 해체하고 나아가 가부장제를 떠받치는 거대한 이성애 권력까지도 여러 다양한 섹슈얼리티의 관계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 미시적 권력으로 해체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는 매우 급진적이자 체제 저항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차이의 정치로는 여성과 자연을 억압하는 자본주의를 위협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버틀러 젠더론의 비(非)정치성을 비판한 미즈의 주장을 통해 현실을 바꾸는 정치성의 토대는 어디에 있는지 들어보자.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이 낳은 가장 부정적인 결과 중의 하나는 이론에 토대를 두고서는 여성 해방이나, 아니면 적어도 다른 어떤 억압받는 집단이나 계급해방을 위한 투쟁이 실제로는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여기서의 오직 차이만 존재하는데, 이 차이는 다양성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로 경쟁하거나 아니면 적대적인 것으로 드러난다. 여기에는 공통성(commonality)이 없으며, 공통적 원인이나 공통윤리, 공통의 비전도 없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행동하

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서는 보다 더 큰 관점이 필수적이다.¹⁵⁾

위에 인용한 미즈의 말을 살펴보면 버틀러 논의의 비정치성은 젠더를 고유의 공통장소에서 뿌리 뽑아 지극히 개별적인 행위로 축소하는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여기서 미즈는 개별성을 개인적인 것으로 이해했지만 실제로 버틀러가 말한 젠더는 개별화된 행위로만 동일시하거나 구별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개별성에 토대를 둔 개념이다. 문제는 젠더가 정말 견고한 물질, 현실적 실체가 없는 허구적 정체성이라면 이런 개별적 행위로 어떻게 현실적인 억압에 저항할 수 있는냐는 것이다. 가령 앞서 예로 들었던 케냐의 농촌지역 여성들은 정부의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환금작물인 커피나무를 뽑고 거기에 마을주민들의 식량을 위한 작물을 심었는데, 이런 정치적 액티비즘은 가부장(남편)과 정부와 나아가 다국적 커피기업에 대한 공통의 경험을 여성들이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미즈의 주장처럼 모든 억압적인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연대의 힘은 바로 이처럼 젠더가 지닌 ‘공통성’에서 나오며, 그것은 복수로서의 ‘여성들’이라는 범주를 공유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제한된 장소에 뿌리를 두고 형성된다. 물론 이런 주장에 대해 다시 본질주의와 공동체주의로의 회귀라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버틀러처럼 생물학적인 본질뿐 아니라 모든 문화적 구성물조차도 본질적으로 동질성이 없다고 해체해버리게 되면 다양한 차이를 인정하는 것 이상의 저항적 정치성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는 것도 사실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젠더는 어떻게 공통성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되는가? 버틀러 젠더론의 가장 큰 한계는 무엇보다 젠더가 본질적으로 구체적인 장소(땅)에 토대를 둔 것임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섹스건 젠더건 간

15) Maria Mies and Veronika Bennholdt-Thomsen (1999), *The Subsistence Perspective*, New York: Zed Books, p. 197.

에 인간은 누구나 장소를 떠나서는 삶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포스트모던 페미니스트들은 자신들이 문화적 구성물이라며 그토록 혐오하는 젠더문화가 바로 제3세계의 많은 토착문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한된 장소 안에서 구체적인 공통경험 위에 오랫동안 형성된 것이며, 그런 젠더간의 연대와 협력 덕분에 삶의 터전을 돌보고 생계를 유지하며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전승해온 문화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런 까닭으로 미즈는 미국의 백인여성 학자들 중심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담론이 지극히 엘리트주의적일뿐 아니라 실제로는 정치적으로도 보수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이런 이론적 이동(1990년대 이후 페미니즘이 강단비평으로 이동한 것 지칭)으로 인해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복수(plurality)의 인간과 문화 그리고 이슈가 지니는 공통성과 연계성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게 되었을 뿐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게 되었다. 정치적 행동은 ‘정치적 올바름’, ‘젠더’, ‘인종’, ‘문화’, ‘성적 지향성’, ‘민족성’ 등을 단지 언어로만 열거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 대부분의 포스트모던 페미니스트들은 어느 한쪽에 서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들은 ‘여성’이건, ‘모성’이건, 아니면 뭐든 간에 사회적 카테고리로 본질화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특히 이들은 젠더에 관한 담론으로 여성운동을 탈정치화하는데 기여하였다(*The Subsistence*, p. 196).

버틀러가 젠더가 지닌 역사성과 공통성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연과의 연계성에 주목하지 못한 것은 그녀의 연구가 미즈처럼 제3세계 토착 여성과 같은 구체적인 장소에 뿌리박은 살아있는 젠더 문화가 아니라 주로 프랑스의 정신분석학 계보와 해체주의 담론에 그 이론적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버틀러는 에코페미니즘의 딜레마인 여성의 생물학적 본질과 여성과 자연과의 장소적 연계성은 해체하였지만, 다른

한편 그녀가 말하는 범주화되지 않은 “행위의 반복된 수행”으로서의 정체성이 현실적으로 어떤 정치적 행동을 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자본주의의 전방위적인 공격 앞에서 잠시 일시적으로 재의미화 되었다가 다시 또 다른 구성물로 흩어지는 ‘비정체성’들의 일시적 접합으로 어떻게 연대하여 자본주의와 생태파괴에 저항할 수 있을지 실로 의문스럽다. 이렇게 개별행위로 축소된 젠더로는 여성과 자연을 더욱 착취하려는 지금의 초국적 자본주의의 공습에 대해 오히려 토착여성들의 저항만큼도 위협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는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와 어머니인 자연으로부터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자본주의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실제로는 자본주의에 더 무방비로 노출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데 있다. 가령 버틀러는 젠더 주체가 실제로는 비결정적이고 가변적이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성/젠더적으로 트랜스(trans)와 크로스(cross)를 넘나드는 드랙 퀸(drag queen)을 언급한다. 이들은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지만 여성을 모방하는 크로스적인 주체들이다. 버틀러가 드랙 퀸에 주목한 이유는 이들의 여성성이 상당히 과장된 재현물을 모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자연스러운 여성성이 아니라 당대의 규범과 담론이 자연스러운 자질로 간주하는 그런 여성성을 과장해서 모방한다는 것이다. 이런 모방 행위를 통해 젠더 수행이 패러디(parody)임을 보여주고, 그런 패러디 속에서 젠더 주체성을 넘나들며 경계를 허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실제 삶은 버틀러의 이론과는 달리 바로 그 가변적인 젠더 정체성 때문에 저급한 대우를 받으며,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그로 인해 자본과 광고, 소비와 상품화의 대상으로 쉽게 전유되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이다.¹⁶⁾ 나아가 드랙 퀸의 여성성은 성폭력의 위협에도 쉽게 노출되며 ‘성’적으로 대상화되기도 쉽

16) 조현준(2014), 『젠더는 패러디다』, 서울: 현암사, pp. 133-134.

다. 이 점에서 왜 포스트모던 페미니스트들은 지구상의 가장 약자들을 착취하는 ‘글로벌 자본주의 가부장제’(global capitalist patriarchy)가 바로 페미니즘의 투쟁 대상이 되어야 함을 모르는가? 라는 미즈의 질문은 상당히 정당한 물음이라고 생각된다.

페미니즘의 출발점이 바로 약자들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음을 기억한다면 지금의 생태위기에 맞서 ‘아래로부터의 관점’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아래에 존재하는 약자들의 삶은 연대하지 않고서는 평화롭게 살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을 역사는 항상 입증한다. 가령 다음의 사례는 젠더의 정치성이 아래로부터의 여성들 간의 연대와 협력에 있으며, 바로 거기서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그리고 식민주의에 저항할 수 있는 힘도 나오는 것임을 잘 보여준다. 미즈가 소개한 1990년대 중반 파푸아 뉴기니의 토착여성들의 투쟁과 저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파푸아 뉴기니는 세계은행에 진 채무 때문에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조조정을 강제로 수용해야 하였다. IMF가 제시한 프로그램은 국토 전역에 걸쳐 수많은 부족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공유지들을 ‘개발’을 위해 사유지로 전환하라는 것이었다. 여기서 개발이란 정부나 거대기업이 들어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공유지에다 대규모 플랑테이션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풍부한 자원을 파내기 위해 농토를 망가뜨리는 것을 말했다. 반면에 토착주민들은 관습적으로 전승되던 토지 소유권을 지키며 지금까지처럼 계속 땅을 일구며 살기를 원했다. 이 때 파푸아 뉴기니는 전국토의 97퍼센트가 전통적인 관습법에 따라 공유지로 남아있었고, 인구의 85퍼센트가 이런 공유지의 권리를 누리며 농촌에 흩어져 살고 있었다. 그 결과 전역에 걸쳐 다양한 토착문화와 무려 869개의 토착방언이 살아있었다. 이런 시스템으로 인해 대다수 사람들은 기근이나 홀리스, 실업과 같은 근대적인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었다. IMF의 조

지에 대해 부족공동체들은 서로 연대하여 토지개혁에 저항하였는데, 이때의 반대운동에는 상당히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였다. 여성들은 공동소유와 공동운영에 토대를 둔 공유지의 확보가 자신들의 생계는 물론이고 땅을 보호하고 문화와 언어를 지키는 길임을 즉각 알아차렸다. 당시 운동을 이끌었던 여성조직의 한 리더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조직의 수장으로서 모든 여성회원들에게 말합니다. 정부가 토지전환 프로그램으로 우리의 토지 공유권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소수의 부자들이 착취하지 않도록 우리의 땅을 지키고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땅을 사적으로 등록하지 않고도 가장 부자부터 가장 가난한 사람 누구나 앞으로 계속 이 땅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침내 정부는 대규모 저항에 굴복했고, 토지전환 프로그램을 철회하였다(*The Subsistence*, p. 145-149).

위 사례는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과 같은 거대 조직이 한 손에는 차관을 다른 손에는 구조조정이라는 채찍을 들고 비산업화 상태에 놓인 많은 공동체들을 해체하여 자원과 토지, 그리고 노동력을 사유화하는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에코페미니즘은 약자에 대한 약탈과 억압이 이처럼 구조적인 문제라고 인식하기에 지금과 같은 자본주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저항의 힘도 개별적인 행위가 아닌 젠더 간의 연대와 협력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4. 젠더의 생태적 저항성을 위하여

지금까지 미즈의 젠더론과 버틀러의 젠더론을 살펴본 것은 물론 후자의 계급적, 정치적 한계를 비판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미즈가 주목한 토착적 젠더문화 속에서 역사적으로 젠더가 지녀온 정

지적 저항성의 토대가 무엇인지를 성찰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적, 생태적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이다. 왜냐하면 미즈는 이분법적 위계구조 속에서는 여성, 신체, 자연과 같이 평가 절하된 존재들끼리의 연결이 상호억압을 강화하기에 이와 같은 구조 자체를 허물지 않고서는 진정한 해방이란 불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분법적 우열관계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구조 자체를 거부하지 않고서는 페미니즘의 의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즈는 가부장제, 자본주의, 그리고 식민주의를 그 대표적인 지배구조로 인식하며, 여성억압, 빈부격차, 그리고 자연착취가 그 결과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여성 젠더가 지니는 정치적 저항성의 토대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어떤 근거로 여성 젠더가 지니는 본질주의적 속성이 억압의 근거가 아니라 저항의 토대가 될 수 있는가? 버틀러가 설명한 것처럼 만약 다수의 여성들이 공유하는 공통성과 여성과 자연과의 연계성이 해체된다면 젠더는 개별적이고 사적인 행위로만 구현될 수 있는 어떤 것이 되기에 본질주의로 인한 억압에서는 풀려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은 풀려남이 지극히 일시적으로 그리고 가변적으로만 구현된다는 데 있으며, 드렉 쿤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런 위태로운 젠더 정체성으로는 자본주의의 지속적인 팽창에 맞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과 자연환경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데 있다. 페미니즘은 오랫동안 젠더를 미심쩍은 눈길로 바라보고 젠더야말로 그동안 여성들이 받았던 억압과 불평등의 원인이라며 탈젠더화의 노력을 경주해왔지만 위의 파푸아 뉴기니 사례에서처럼 실제로는 거대권력에 대한 여성들의 연대적 저항만이 삶의 터전과 자연을 지킬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젠더가 지닌 생태적 저항성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파푸아 뉴기니 사례에서도 암시되듯이 여성 젠더의 임파워먼트의 근거는 땅에 대한 사유권을 강화하는 구조가 아니라 공유권을 강화하는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 점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의 확대야말로 기준

의 토착공동체가 지닌 경세제민의 원리라는 것이다. 자본주의로의 이행이란 공유의 권리를 사유의 권리로 전환하는 일련의 과정에 다름 아닌 것이다. 물론 위의 사례는 비근대적인 토착사회 여성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오늘날 대도시에 사는 대다수의 여성들에게는 공유지의 경험이 없는데다 실제로는 미시적인 성차별이 거시적인 자연파괴보다 더 피부에 쉽게 와 닿는 것도 사실이다. 성차별과 불평등은 아무리 미시적이더라도 페미니즘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제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또한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많은 중층적 접점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끊임없이 생기는 개별적인 ‘차이’에 대해 정치적으로 공적인 인정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차이의 정치학’으로는 계급, 인종, 민족, 종교를 교차하며 일어나는 다양한 불평등과 자연에 닥친 위기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자연(땅)이 원래의 공유적 속성을 상실하고 소수에게로 사유화됨으로써 파국적인 변화를 겪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 젠더도 미시적인 차이의 발견에 의해 거시적인 공통성을 상실하게 되면 쉽게 개별화되고 사적인 어떤 것으로 변하게 된다. 그 결과 여성과 자연 모두 자본주의의 상품화에 취약하게 된다. 물론 지금과 같은 초국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통적 의미의 공유지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차원에서의 공유권을 상상할 수는 있는데, 가령 기본소득의 도입도 그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기본소득은 일종의 시민배당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빈부격차를 확대하는 화폐의 점유권보다 보편적인 사용권을 확대하려는 그런 시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교육의 공유적 속성, 자원의 공유적 속성, 예술의 공유적 속성과 같이 각 분야에서 공유적 대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자연과 같은 공유재들이 상품화되면서 일어나는 광범위한 환경파괴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공유권의 확대는 남녀 두 젠더간의 성차별이나 착취가 아닌 젠더의 공생을 지향하는 것이며, 나아가 인간과 자연과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모

색하는 것이기도 하다. 남녀 간의 평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젠더들 간의 공존도 우리가 먼저 자연과의 공생을 도모하지 않고서는, 다시 말해 더 많은 개발을 자제하지 않고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에코페미니즘의 젠더 논의가 페미니즘 학계에서 더 활발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논 저】

- 공윤경 외(2017), 『생태와 대안의 로컬리티』, 부산: 부산대학교 출판부.
- 박혜영(2009), 「생태파괴시대의 페미니즘」, 『영미문화페미니즘』 17 (1), pp. 81-105.
- 우에노 치즈코(2010), 나일등 역, 『여성혐오를 혐오한다』, 서울: 은행나무.
- 조지프 스티글리츠(2013), 이순희 역, 『불평등의 대가: 분열된 사회는 왜 위험한가』, 서울: 열린책들.
- 조현준(2014), 『젠더는 패러디다』, 서울: 현암사.
- 주디스 버틀러(2006), 조현준 역, 『젠더 트리플: 페미니즘과 정체성의 전복』, 서울: 문학동네.
- 토마 피케티(2014), 유영 역, 『불평등 경제』, 서울: 마로니에 북스.
- 클라이브 해밀턴(2018), 정서진 역, 『인류세』, 서울: 이상북스.
- D’eauborne, Françoise (2008), “The Time for Ecofeminism” in *Ecology*. (Ed. Carolyn Merchant), New York: Humanity Books.
- Gaard, Greta (2011), “Ecofeminism Revisited: Rejecting Essentialism and Re-placing Species in a Material Feminist Environmentalism.”, *Feminist Formations* 23 (2): 26-53.
- Merchant, Carolyn (1992), *Radical Ecology: The Search for the Livable World*. New York: Routledge.
- Mies, Maria (1998), *Patriarchy & Accumulation on a World Scale*. New York: Zed Books.
- Mies, Maria and Veronika Bennholdt-Thomsen (1999), *The Subsistence Perspective*. New York: Zed Books.
- Mellor, Mary (2007), “Ecofeminism: Linking Gender and Ecology” in *The Sage Handbook of Environment and Society*. (Ed. Jules Pretty & All), Sage Publications.
- Plumwood, Val (1994), “The Ecopolitics Debate and the Politics of Nature” in *Ecological Feminism*. (Ed. Karen Warren), London: Routledge.

Warren, Karen (1994), "Toward an Ecofeminist Peace Politics" in *Ecological Feminism*. (Ed. Karen Warren), London: Routledge.

Warren, Karen (2000), *Ecofeminist Philosophy*,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https://www.forbes.com/sites/bonniechiu/2019/09/19/the-greta-thunberg-effect-the-rise-of-girl-eco-warriors/#36dcd2ba407f>.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804301430421&code=115>.

원고 접수일: 2019년 10월 23일

심사 완료일: 2019년 11월 4일

게재 확정일: 2019년 11월 7일

ABSTRACT

Rethinking on Gender of Ecofeminism
in the Era of Ecological Crises:
For Promoting its Political Activism

Park, Hye-Young*

This essay clarifies the concept of gender of Ecofeminism, a theory of combination of ecological and feminist approaches with a strong emphasis on the connections between women and nature. Ecofeminism insists on bringing feminism and ecology together because it views the domination of women and the degradation of nature as the same consequences of both patriarchy and capitalism. However, Ecofeminism is charged as essentialism and discredited by many feminists due to of its idea of women's closeness to nature. The idea of affinity of women and nature in Ecofeminism is regarded to be of the same logic of patriarchy, in which men predominate all the privileges while women are treated as being inferior to men. Also the idea of a single category of women in Ecofeminism excludes many different gender identities, just as the same exclusion principle of the patriarchy system. The criticisms on the essentialism, however, can be rebuked by examining the social strength what Maria Mies asserts as a foundation of the third world indigenous women's

* Professor,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Inha University

activism against the dominance of the transnational capitalism. Their communal gender culture can be a powerful alternative for the sustainable future of the Earth. For promoting political activism that this communal culture traditionally has, this essay examines Mies's concept of gender in comparison with Judith Butler's concept of performativity of gender identity.